

# 성령으로의 세례

— 예언(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

이 승 미\*

◇ 목 차 ◇

## 서 론

### I. '성령으로의 세례'—용어의 출처

1. 중요성
2. 용어의 출처
  - 1) 복음서
  - 2) 역사서
  - 3) 서신서

### II. 예언(약속)

1. 구약에서의 예언(약속)
  - 1) 요엘 선지자
  - 2) 이사야 선지자
2. 신약에서의 예언(약속)
  - 1) 세례 요한
  - 2) 사도 요한
  - 3) 예수 그리스도

### III. 예언(약속)의 성취

1. 예비적 사건들(행 1장)
2. 성취의 현장(행 2장)
3. 사도들의 증거(서신서)

## 결 론

## 서 론

본 연구는, 오늘날 교계의 최대 관심이 되어있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간단히 예언

\*조교수, 신약학 전공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성령론에 대한 논쟁점의 근본은 성경 전체의 균형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성령세례'라고 하여, 주로 사도행전 혹은 고린도서의 일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특수한 현상들에만 너무 집착하여, 다른 곳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오류에서 여러가지 해석상의 혼란과 일관성의 결여 내지 인위적인 억지 해석과 적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본 연구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주로 역사적 시간대에서 예언되어 졌고, 언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해석상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한다. 성경해석 방법중,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들을 먼저 뼈대로 삼고, 그 분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려운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적용이다.

## I. '성령으로의 세례'—용어의 출처

### 1. 중요성

'성령세례'(The Holy Spirit-Baptism)란 용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약의 '성령으로의 세례'('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에 대한 간략형이다. 웨케마(A.A. Hoekema)는 그의 책 "Holy Spirit Baptism"에서 용어상의 표현을 오해가 없도록 간략하나마 설명을 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성령의 세례'("The Spirit's Baptism"<sup>2)</sup> 혹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sup>3)</sup>, 혹은 '성령세례'("Spirit Baptism"<sup>4)</sup>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잘못 강조할 위험성이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위의 용어들은 어떤 설명없이 사용되어 질 경우,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질서 내지 조화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계시를 할 때, 그 초점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성령님은 중재적 위치에서 사역하

- 1) Hoekema, A.A., *Holy Spirit Baptism*(1975, Exeter: The Paternoster) p. 10: "...The Spirit-baptism(a shorter way of saying, 'baptism in the Holy Spirit')"
- 2) Green, M., *I Believe in the Holy Spirit*(1979, London: Hodder and Stoughton) p. 123ff.
- 3) Cole, R.A., "Baptism of the Holy Spirit"(In: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ed. by M.C. Tenney, 1980, Vol. 1, pp. 470-1)
- 4) Best, E., "Spirit-Baptism"(In: *Novum Testamentum*, 1960, Vol. 4, p. 236ff)

고 있음을 본다. 계시의 주제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성령님을 '통한'("through")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강조되어 있다.<sup>5)</sup> 이것이 '성령세례' 혹은 '성령의 세례'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성에 맞는 성령이 크게 부상하게 될 우려다. 마치 성령님이 세례의 주체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워져 버리고, 강력한 성령님만이 주장이 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세례를 베푸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자들 혹은 은사 운동(charismatic movement)주장자들의 강조점과 일치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sup>6)</sup> 그러므로 성경이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성경이 어떤 의미와 비중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서, 바른 용어를 발견, 사용함이 중요하다.

### 2. 용어의 출처

신약성경에 성령님과 세례를 바로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7번이다. 4복음서 모두에 각각 한번씩 나타나고, 역사서에서 두번, 그리고 서신서에 한번 기록돼 있다. 그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복음서

- (1) 마3: 11—"... 그(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αὐτὸς ὑμᾶς βαπτίσει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πυρὶ*
- (2) 막1: 8—"...그(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αὐτὸς δὲ βαπτίσει ὑμᾶς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 (3) 눅3: 16—"그(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αὐτὸς ὑμᾶς βαπτίσει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πυρὶ*
- (4) 요1: 33—"그(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 줄 알라 하셨기에..."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 5) DuToit, A.B.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In: *Guide to the New Testament*, 1979, vol. 1, pp. 98-99)
- 6) 은사운동가인 Horton, H.는 그의 책 *The Gifts of the Spirit*(1971, Nottingham: Assemblies of God Pub. House) p. 207에서 오순절과 성령의 강력함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These emanations of the Holy Ghost are Pentecost! ...Pentecost is POWER! Supernatural Power-Uncion-Miracles-Signs-Wonders-Mighty works-Wondrous Acts-Healings-Visions-Dreams-Revelations-Prophecies-Tongues..."



2) 역사서

(1) 행1:5—"...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ὑμεῖς δὲ ἐν πνεύματι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ἀγίῳ ὄν 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

(2) 행11:16—"...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것이 생각났노라"

*ὑμεῖς δὲ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ἐν πνεύματι ἀγίῳ.*

(3) 서신서

(1) 고전12: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καὶ γὰρ ἐν ἐνὶ πνεύματι ἡμεῖς πάντες εἰς ἓν σῶμα ἐβαπτισθημεν.*

위의 표현들에서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요약할 수 있다:

1) '성령'과 '세례'와의 직접적인 관계 표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헬라이어 전치사 ἐν)라는 점이다. 전치사 ἐν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주다'('baptize')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세례받게 될 지역(막1:4; 요3:23), 이름, 혹은 요소(element)를 지적해 준다.<sup>7)</sup> 만일 성령님을,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강력한 주인공으로 나타낼려고 했다면, 세례와 관련하여 기록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수동태 동사에서 전치사 ἐν 대신에 동인(agent)을 나타내는 ὑπο 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wjs치사 ἐν 을 사용함으로써, 성령님은 세례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수단 혹은 도구(instrumental)의 위치에 있고<sup>8)</sup>, 세례의 동인(agent)은 숨겨져 있다.

2)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다른 여러 곳에서 밝혀져 있다. 복음서 모두가 일관되게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ὁ αὐτός 혹은 αὐτός 를 사용하고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임을 말하고 있다.

3)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령으로의 세례'에 해당하는 명사형은 나타나지 않고 모두 동사의 미래형,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시상이 각각 나오고, 또한 능동태와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예언이 시간적으로 앞서 있었고, 때가 찰 때 이루어졌고, 과거형 표현으로 이루어졌음이 기록돼 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동시에 신약의 첫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은 공관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오순절 10일 전<sup>9)</sup>에(행1:5) 재 확인되었고 사도행전 2:1-33에

7) Poythress, V.S., "Baptism in the Holy Spirit"(In: *The Outlook*, 1975, May, p. 12)  
8) Zerwick, M. & Grosvenor, M.,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1981, Rome: Biblical Institute) p. 350; Zerwick, M.,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English edition by Smith, J., Rome, 1983) p. 40.  
9) Gloag, P.J. *The Acts of the Apost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1979, reprinted by Klock & Klock) p. 46.

서 성취되었다. 고전12:13에서는 성령으로의 세례는 이미 과거 지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4) '성령으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예언부분과 성취의 사실들은 모두 그 성격상 역사성이 강조된 4복음서와 사도행전<sup>10)</sup>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이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속에서 나타난 사건임을 지적해주는 중요한 면이다.

'성령으로의 세례'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Christ the Author of the baptism of the Spirit"<sup>11)</sup>)며 이것은 역사의 흐름 과정중에서 예언(약속)되었고, 이어서 성취된 구원 역사 과정중의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예언 혹은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한 예언 혹은 약속이 있는 후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겠다.

II. 예언(약속)<sup>12)</sup>

4복음서 모두가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는 동일 예언을 행1:4-5에서 재 확인시킨 후, 행2:1-33에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성령으로의 세례'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sup>13)</sup>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약속)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으

10) Tenney, M.C., *New Testament Survey*(1976, Grand Rapids: Eerdmans) p. 125: "...the first five books of the New Testament, Matthew, Mark, Luke, John, and Acts, are 'historical' in character ..."; Thiessen, H.C.는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1979, Grand Rapids: Eerdmans)의 목차에서 공관복음을 "The historical books"로 분류하고 있으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묶음으로 연계시켜 역시 두권을 별도로 "The historical books"로 간주한다.  
11) Calvin J., *The Acts of the Apostles 1-13*(Calvin's Commentaries trans. by Fraser, J.W., and McDonald, W.J.G., 1973) Grand Rapids: Eerdmans, p. 28; 요1:33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The Baptizer in Holy Spirit'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로 나타낼 수 있다.; NIV-"h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NEB-"he who is to baptize in Holy Spirit"  
12) '성령으로의 세례'를 예언 혹은 약속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내용을 두고, 세례 요한은 예언적 차원에서 그리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 24:49에서 아버지의 약속(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의 차원에서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를 예언 혹은 약속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Marshall, I.H.("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77, vol. 30: no. 4, pp. 347-369), Bruce, F.F.("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Interpretation*, 1973, vol. 27: no. 2, pp. 166-183)등이다.  
13) 오순절 성령강림을 '성령으로의 세례'로 보는 학자들은 Marshall, I.H.(앞의 글 pp. 347-351: "The narrative in Acts interprets it a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the baptism with the Spirit made by John the Baptist...The Pentecost event is, then, identified with the baptism of the Spirit promised by John the Baptist..."), Bruce, F.F. (앞의 글 p. 167: "...John the Baptist's prediction was fulfilled at Pentecost. ...When, a few days later, the apostles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y recognized that Jesus had inaugurated his baptizing work(Acts 2: 33)"), Gloag, P.J. (앞의 책 p. 46), Hoekema(앞의 책 p. 19)등이다.

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구약에서의 예언(약속)

1) 요엘 선지자 :

요엘은 주전8-9세기 경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의 예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요엘2 : 28-32)

위의 말씀(예언)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첫째, 베드로는 요엘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μετὰ ταῦτα<sup>14)</sup>:“afterwarb”-NIV)를 “말세에”(ἐν ταῖς ἑσχαταῖς ἡμέραις<sup>15)</sup> “In the last days”—NIV)로 해석하고 있다. 요엘의 ‘그 후에’의 시간 개념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당시에 “말세에”라고 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전의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요엘은 800-900년 전에 벌써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심판의 날과 겹쳐보고 예언했는데, 베드로는 동일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sup>16)</sup>

둘째, 이 예언의 주된 사상은 “구원”이다. 오순절 성령님을 “만민에게”(upon all flesh)부어 주리라는 사실은 의미 심장하다. 이것은 분명히 오순절때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매여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까지 제한없이 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방을 향한 세계적인 선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뜻한다.<sup>17)</sup>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여호와의 백성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요엘의 이 예언 내용은 모세의 예언 말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민수기 11 : 29의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내용과 서로 통하는 예언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 할것”이라는

14) Septuaginta(Vol. 2, ed. by Rahlfs, A., 1959) : I Ω Η Λ 3 : 1  
15) The Greek New Testament(ed. by Aland, K., Black, M., Metzger, B.M., Wikgren, A., 1967) 행2 : 17  
16) Van Unnik, W.C., “The ‘Book of Acts’ The Confirmation of the Gospel”(In: *Novum Testamentum*, 1960, Vol. 4, p. 50)  
17) Bruce, F.F., *The Book of the Acts*(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1977, Grand Rapids : Eerdmans), p. 68 ; Marshall, I.H., *The Acts of the Apostles*(Tyndale New Testament, 1981), p. 73.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도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sup>18)</sup>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구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보다, 오늘날 일반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월등한가! 성령시대의 특징이다.

2) 이사야 선지자 :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680 년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분으로 이사야32 : 15-16의 내용은 요엘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눅24 : 49)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예언하고 있다.<sup>19)</sup>

이사야 32 : 15-

“필경은 위에서 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당시의 가까운 시간대에 나타날 앗수르의 침공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이후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으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오직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성령님의 오심으로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한 것은 멀리로는 오순절 성령님의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한 말씀이다.<sup>20)</sup>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나타날 일들에 대한 표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의미도, 그리스도 복음시대에 나타날, 이방인들을 향한 붓물이 터진듯한 복음의 확장, 구원의 영향인 것이다.<sup>21)</sup>

2. 신약에서의 예언(약속)

1) 세례 요한 :

4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하나같이 세례 요한을 통

18) Poole, M.,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 Vol. 2-Psalms-Malachi*(1979), p. 893.  
19) Marshall, I.H.,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In :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77, Vol. 30 : no. 4, p. 352).  
20) Poole, M., 앞의 책 pp. 401-402.  
21) Poole, M., 앞의 책 p. 402.



한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하면서, 미래형 동사<sup>22)</sup>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미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시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누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의 대조를 크게하기 위해 "δε"를 세번 사용하면서 메시야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고 한다(막1:8; 행1:5; 11:16). 이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상징적이지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라면, 그와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시행하실 '성령으로의 세례'는 실제적인 참된 것이요, 영구적인 것을 나타낸다.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난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까지 짐작케 해 주는 예언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의 세례자'로 계시하신 것은 분명히 멀리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요한복음 1:29-34의 문맥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 부분들인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야의 앞날을 내다보고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예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메시야와 관련하여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오순절 성령강림, 즉 '성령으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이 우선 없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요7:39; 16:7).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위의 사역을 모두 끝내시고, 아들로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이 있을 때, '성령으로의 세례'가 이루어 질 것인데, 그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회적이지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요한의 물 세례는 어디까지나 구약의 예언적 배경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자로서의 메시야에 대한 공적인 선포의 새

22) 사도요한의 경우 그의 복음 1:33에서 현재 분사형 'ο βαπτίζων' 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래적인 의미로도 가능한 경우다: Zerwick, M., & Grosvenor, M.,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Rome: Biblical Institute, 1981), p. 288.

23) Bruce, F.F.,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In: *Interpretation*, 1973, Vol. 27: no. 2, p. 166)

시대가 이미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다.<sup>24)</sup>

2) 사도 요한:

그리스도의 '영광'후에 오실 성령님

요7:39—"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ὅτι: since or because)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후'(요16:7)에 이루어 질 것임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그 시간적 순서가 매우 밀접하게 묶어져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요한복음13:31에 의하면, 예수로 넘겨줄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단순 과거 수동태)<sup>25)</sup>라고 했으나, 요17:1에는 또 다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스테반이 바라 보았던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오순절 성령강림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진,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는데(행7:55-56),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sup>26)</sup>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다(요19:30) 그것은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아버지께로 가시는'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의 죽으심이 영광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56)

24) Vos, G., *Biblical Theology*(1975, The Banner of Truth Trust), pp. 315-316; Oepke, A., "βαπτίζω"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1952, pp. 536-538).

25) 여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εδοξάσθη' (단순과거)는 가룟유다의 배신 행위가 너무 확실한 것임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전제로 한 "dramatic aorist"로 볼 수 있다. 방금 일어난 어떤 행위가 현재에 영향이 미칠 만큼 너무나 확실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aorist다: Robertson, A.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r Light of Historical Research*(1934, Nashville: Broadman) pp. 841-843.

26) Holwerda, D.E., *The Holy Spirit and Eschatology in the Gospel of John*(A Critique of Rudolf Bultmann's Present Eschatology, 1959, Kampen: J.H. Kok N.V.) p. 17.

3) 예수 그리스도 :

(1) 할 말을 인도하실 성령님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것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마10 : 20—"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막13 : 11—"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눅12 : 12—"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위의 내용은 첫째, 주의 제자들이 장차 회당과 정사잡은 자와 권세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눅12 : 11) 핍박 받게 될 일이 발생할 것이고, 둘째, 그들 앞에서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διδάξει: 눅12 : 12)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성령"(마10 : 20)이란 표현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눅24 : 49)과 서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오순절때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과 그 이후 핍박중의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강력한 사역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공관 복음의 이와 같은 '핍박'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 주제는 요한복음 14 : -16 : 에서도 꼭 같이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sup>27)</sup>

(2)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보혜사)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고별사(Farewell-Discourses : 요한복음14 : -16 : )에서 특이하게 성령님(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바로 오순절 때에 강림하실 바로 그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sup>28)</sup> 성령님을 '보내신다', '주신다', '오

27) Marshall, I.H., 앞의 글 p. 351; Poole, M.,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Vol. 3, Matthew-Revelation) p. 45.; 요한복음 14 : -16 : 에서의 승천이후 사도들의, 세상의, 그리고 교회의 제 상황과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참고 : Lee Seung Mi,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14-16*(1982, Disser tation for Th. M. : Potchefstroom : PU for CHE) pp. 64-72

28) 보혜사 성령님의 오실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즉 오순절 성령강림) 후 그 성령님의 영향으로 활동한 사도들의 사역내용들이, 요한복음내의 성령님에 대한 예언적 내용들(요14 : -16 : )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많은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오순절날(행 2 장)에 신실하게 성취된 것임을 본 것이다 : Lofthouse, W.F., "The Holy Spirit in the Acts and the Fourth Gospel"(In : *The Expository Times*, 1941, Vol. 52, pp. 334-336; Bruce, F.F., *The Book of the Acts*(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1977), Grand Rapids : Eerdmans, p. 36; Guthrie, D., *New Testament Theology*(1981), Leicester : Inter-Varsity, p. 530; Howard, W.F., *Christianity according to St. John*(1943), London : Duckworth, pp. 71-75; Firor, W.M., "Fulfillment of Promise :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In : *Interpretation*, 1953, Vol. 7, pp. 299-314); Lee, Seung-Mi,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Writing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Gospel of John and 1 John*(1984, a doctoral thesis, Potchefstroom : PU for CHE, pp. 129-134.

신다'는 표현으로 성령님의 강림하실 일에 대하여, 놀랍게도 삼위 일체 하나님의 연합적 역사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요14 : 26—"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πέμφω) 성령..."

(3)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

요15 : 26—"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πέμφω) 보혜사..."

요16 : 7—"...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πέμφω)..."

(4)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님

요14 : 16—"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δώσει)..."

(5) 성령님 자신이 오실것이란 표현

요16 : 7—"...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ούκ'ελεύσεται)..."

요15 : 26—"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ἔλθῃ)"

요16 : 13—"진리의 성령이 오시면(ἔλθῃ)"

(6) 그리스도의 가심 없이 성령의 오심은 없음

요16 : 5-7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오순절 날에 오실 성령님에 관한 중요한 면들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성령님은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버지의 일을 이미 지상에서 완성하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로 직접 증거하실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sup>29)</sup> 과거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땅위에 계실 때의 차원이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부활후

29) Lee, Seung-Mi,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14-16*(1982), Potchefroom : PU for CHE, pp. 77-79.



승천하실 예수', '우리의 계속 사역을 완성하실 메시아'의 정도가 아닌, 이미 완성하신, 끝내신, 그리하여 그 영향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맛 볼 수 있는, 사탄의 주된 세력이 이미 완전히 꺾여 버려(요16:11; 히2:14...) 사탄이 재기 할 수 없게끔 된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임을, 오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적용시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7) 영원토록 함께하실 성령님

요14:16-17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8) 보내실 것의 재 강조

눅24:49—"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 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the Holy Spirit")<sup>30)</sup>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 특히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제한적인 면을 암시해 주는 ἄως οὗ 를 사용하여 '...때까지'("Until")<sup>31)</sup>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만 기다리라고 한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열심, 노력, 조건과는 전혀 관계 없이 때가 될 때, 때가 찰 때 이루어 질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9) 재 강조의 반복

행1:4—"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눅24:49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 시키시면서 같은 내용의 반복된 말씀,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다. 이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말씀을 하므로 설명을 주신다. 즉 행1:5은 4절에 이어서 나온 내용인데,

30) Zerwick, M. & Grosvenor, M.,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Rome: Biblical Institute 1981) p. 284.  
31)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trans. & ed. by Arndt, W.F. and Gingrich, F.W., 1952), Chicago: University Press, p. 33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여,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를 비교하므로 '성령으로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으나, 세례 요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여기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세례를 베푸시는 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성령으로의 세례'가 '물 세례'와 비교된 것은 '성령으로의 세례'가 강한 구약적 배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2)</sup> 행1:5은 10일 후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될 즈음에 주신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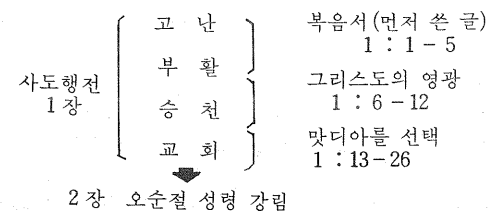
III. 예언(약속)의 성취

1. 예비적 사건들(행 1장)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마지막 예고적 말씀(행1:5)이 포함된 사도행전 1장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3)</sup>

- 1. 서론(1:1-5) : 복음서(십자가와 부활)의 계속
- 2. (1:6-12) : 승천
- 3. (1:13-26) : 맛디아의 선택

위의 문단의 세가지 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2)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영향하에서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사실 하나는 베드로, 스테반, 바울 모두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행2:16-36; 7:1-60; 13:14-23)  
33) Guthrie, D., *New Testament Introduction*(1979), Inter-Varsity Press, p. 380; Bruce, F.F., 앞의 책 pp. 30-45; Marshall, I.H., *The Acts of the Apostles*(Tyndale New Testament, 1981), Grand Rapids: Eerdmans, p. 51.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1-2에서 기록 목적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는 먼저 쓴 글(누가복음)의 계속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고 밝혀주고 있다. 먼저 쓴 글에서는 무엇을 취급했는지 누가복음의 긴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그 중심 부분을 그리스도의 고난(해 받으심)과 부활로 요약한다. 이어 '성령으로의 세례'(1:5)를 기록한 후 바로 주님의 승천 사건을 역사적인 생생한 사실로 기록한다. 이것은(승천 사실) 요한복음 14:-16:에서 강조한 성령님의 강림은 역사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계로의 가심없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후 맛디아를 가롯 유다 대신 뽑는 일이 길게(1:13-26) 기록돼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글(시 69:25)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옛날 다윗의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를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 대신,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도 역시 다윗의 글에 간접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이다(시109:8). 맛디아를 선택하여 11사도와 함께 12 숫자가 차게 될 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되는 때와 서로 일치하고 있다(행 2 장).

11사도에 맛디아 사도 한 사람이 더 첨가되어 '12'라는 수를 채우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와의 관련성을 보이시기도 했다(마 19:28; 눅22:29-30). 그리스도의 승천 후 11사도만으로 복음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12수를 채우신 것은 분명히 옛 언약에 속했던 구약교회(이스라엘)와의 연계성에 있음에는 분명하다.<sup>34)</sup>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탄생할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한, 구약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광야교회": 행7:38)의 교회의 시작을 뜻한다.<sup>35)</sup> 오순절로 탄생한 교회는 기생 라합,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방인 고넬료, 에디오피아의 내시, 모두가 한 성령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2. 성취의 현장(행 2 장)

사도행전 2 장은, 성령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34) Bo Reicke, "The Risen Lord and His Church: The Theology of Acts"(In: *Interpretation*, 1959, vol. 13, p. 164; Mattill, Jr. A.J., "The Jesus-Paul Parallels and the Purpose of Luke-Acts: H.H. Evans Reconsideration"(In: *Novum Testamentum*, 1975, vol. 17, p. 22.  
 35) Bo Reicke(앞의 글 p.104)는 기독교회와 이스라엘 백성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the church is thought to be nothing but the real people of God, Israel, who has met her Messiah in Jesus"

1. 성령의 강림(2:1-4)
2. 무리의 소동(2:5-13)
3. 사도들(교회)의 해석(2:14-36)
4. 바른 해석에 따른 생활(2:37-47)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행2:1-4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점이다. 행2:16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하에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르매"(2:1)라고 하므로서, 성령강림의 때를 말하고 있다. 여러차례 중복되었던 그 예언들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될 때,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홀연히 하늘로 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도 있었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도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했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다. 놀랍고 경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참되고 건전한 교회 탄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현장속에서 기이한 체험을 하고는 있으나, 참된 교회, 바른 교회의 바른 해석, 설교없이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새 술에 취하였다"는 정도밖에 말할 줄 몰랐던 무지한 무리였다. "베드로와 열 한 사도" (ὁ πέτρος σὺν τοῖς ἑνδεκά: : 행2:14)만이 그 당시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와 그 기이한 광경의 뜻을 알고 믿고 는, 무지한 무리를 향해 바른 해석을 했던 것이다. 무리들은 정통한 참 교회의 바른 해석의 결과 회개하고, 비로소 믿고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행2:37-47). 베드로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교회의 가르침이요 해석이었다.

휘로르(Firor, W.M.)<sup>36)</sup>는 오순절 날의 성령님의 오심을, 메시야의 초림과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다. 양쪽 모두 새로운 시대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대등한 중요한 사건들이였고,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들로 비교하고 있다.<sup>37)</sup>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현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적인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메시야 초림 당시의 이적적인 사건들과 비교함이 필요하겠다.

36) Firor, W.M.(앞의 글 p. 310)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The advent of the Spirit is comparable in all respects to the advent of the Messiah..."  
 37) Firor, W.M., 앞의 글 p. 310.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탄생하실 때, 역시 놀라운 이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다. 탄생 자체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이적이었고(마1:20; 눅1:26-30),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적적인 인도(마2:1-12)가 있었고, 동방 박사와 요셉이 이적적인 꿈의 지시를 받았고(마2:12-13), 홀연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고(눅2:13-14), 밤에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선 것을 보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으로 크게 두려워하기도 했으며(눅2:8-9), 또 그 천사들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까지 볼 수 있었다(눅2:15). 이적들이 불신자들에게 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초림때의 그와 같은 이적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재현시켜 주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다만 제 2위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강림을 전후한 하나님 아들되심에 대한 영광의 장엄한 시위로 이해한다면, 제 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적 강림시에도 메시아와 대등한 놀라운 일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3. 사도들의 증거(서신서)

여기서는, 오순절 날에 역사적으로 오신 성령님을 체험 했던 분들이 그 후에, 성령님의 오신(과거형)사실을 어떻게 기록(증거)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분으로서 후대에 그의 오신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벧전1:12—"...하늘로 부터 보내신 (ἀποσταλέντι ἀπ' οὐρανοῦ: 단순과거형) 성령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도 했고, 이미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하기도 했고, 오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란 내용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전 12:13; 고후1:22; 5:5; 엡1:13-14; 롬3:23...).

사도 요한 역시 오순절 성령강림 현장을 목격한 분으로서, 그의 후대 기록에서 과거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모두 '주셨다' 혹은 '받았다'는 과거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요일3:24 "우리에게 주신 (ἡμῖν ἔδωκεν)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ὃ ἐλάβετε ἀπ' αὐτοῦ) '기름 부음'<sup>38)</sup>이 너희 안에 거하

38) '기름부음' (χρῖσμα) 은 곧 '성령님'을 가르킨다. 참고: Lee, Seung-Mi,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Writings*(1984, a doctoral thesis), Potchefstroom: PU for CHE, pp. 188-205.

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 결 론

지금까지 '성령으로의 세례'를 예언(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요약할 수 있다:

1. 보다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 세례'라기 보다 '성령으로의 세례'다. 모두 신약 성경의 동사형에서 나온 용어다. '성령으로의 세례' 표현은 성령의 역사중 그리스도 중심이 다소 보완된 성경 계시의 본래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다.

2. '성령으로의 세례'는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약속)되었고 때가 찰 때,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 중의 한 사건이며,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강림 사건(행 2 장)을 말한다. 이 사건은 메시아의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사건과 서로 대등한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죽음을 통한 부활과 승천)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지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었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선포의 확장을 출발케 한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초림하신 주님과 초림하신 그 주님의 땅위의 계속된 사역이 구분될 수 있는 것 처럼, 역사의 한 시점, 장소에 단회적으로 오신 성령님과 그분의 계속되는 사역간의 구분은 가능하다.

3.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두었던 장벽을 넘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도 제한없이 흘러간 시대를 시작케 했다. 이제는 개와 같이 취급해 왔던 사마리아인도, 이방인 고넬료도,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다 함께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땅끝까지 복음의 공유자가 될 수 있었다. 만민의 복음이 되었다.

4. 오순절 이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신 성령님의 계속적인 증거, 가르치심, 인도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위대했던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계시의 지식인들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지식의 풍요속에 살고 있다.

5. '성령으로의 세례'를 이미 받은 교회는, 항상 영광의 주님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주인(머리)으로 모시고, 신·구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모든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요일5:20)을 만민에게 증거하게 된다.

## 참 고 문 헌

- Bauer, W., 1952.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tran. & ed. by Arndt, W.F. and Gingrich, F.W.), Chicago : University Press.
- Best, E., 1960. "Spirit-Baptism"(In : *Novum Testamentum*, Vol. 4, pp. 236-243).
- BoReicke, 1959. "The Risen Lord and His Church : The Theology of Acts" (In : *Interpretation*, Vol. 13, pp. 157-169)
- Bruce, F.F., 1973.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In : *Interpretation*, Vol. 27 : no. 2, pp. 166-183).
- Bruce, F.F., 1977. *The Book of the Acts*(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Calvin, J., 1973. *The Acts of the Apostles*(Calvin's Commentaries tran. by Fraser, J. W. & McDonald, W.G.), Grand Rapids : Eerdmans.
- Cole, R.A., 1980. "Baptism of the Holy Spirit"(In :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ed. by M.C. Tenney, Vol. 1, pp. 470-471)
- Dunn, J.D.G., 1970. "Spirit Baptism and Pentecostalism"(In :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23, pp. 397ff.)
- Du Toit, A.B., 1979.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In : *Guide to the New Testament*, Vol. 1, pp.77-171).
- Firor, W.M., 1953. "Fulfillment of Promise" :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In : *Interpretation*, Vol. 7, pp. 299-314).
- Gloag, P.J., 1979, *The Acts of the Apostles(Vol. 1)* :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reprinted by Klock & Klock.
- Green, M., 1979.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 Guthrie, D., 1979. *New Testament Introduction*. Leicester : Inter-Varsity.
- Guthrie, D., 1981. *New Testament Theology*. Leicester : Inter-Varsity.
- Hoekema, A.A., 1975. *Holy Spirit Baptism*. Exeter : The Paternoster.
- Holwerda, D.E., 1959. *The Holy Spirit and Eschatology in the Gospel of John* (A Critique of Rudolf Bultmann's Present Eschatology). Kampen : J.H. Kok
- Horton, H., 1971. *The Gifts of the Spirit*. Nottingham : Assemblies of God Pub. House.
- Howard, W.F., 1943. *Christianity according to St. John*. London : Duckworth.
- Lee, Seung-Mi, 1982.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14-16* (a Dissertation for Th. M.). Potchefstroom : PU for CHE.
- Lee, Seung-Mi, 1984.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Writings : With Special*

- Referenc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Gospel of John and 1 John*(a Doctoral Thesis). Potchefstroom : PU for CHE.
- Lofthouse, W.F., 1941. "The Holy Spirit in the Acts and the Fourth Gospel"(In : *The Expository Times*, Vol. 52, pp. 334-336).
- Marshall, I.H., 1977.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In :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30 : no. 4, pp. 347-369)
- Marshall, I.H., 1981. *The Acts of the Apostles*(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 Eerdmans.
- Mattill, Jr. A.J., 1975. "The Jesus-Paul Parallels and the Purpose of Luke-Acts : H.H. Evans Reconsideration"(In : *Novum Testamentum*, Vol. 17, pp. 15-46).
- Oepke, A., 1978. "βαπτίζω"(In :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pp. 529-546, Grand Rapids : Eerdmans).
- Poole, M., 1979.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Vol. 2) : Psalms-Malachi*. Carlisle : The Banner of Truth Trust.
- Poole, M., 1979.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Vol. 3) : Matthew-Revelation*. Carlisle : The Banner of Truth Trust.
- Poythress, V.S., 1975. "Baptism in the Holy Spirit"(In : *The Outlook*, May, p. 12)
- Robertson, A.T., 1934.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 Broadman.
- Tenney, M.C., 1976. *New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 Eerdmans
- Thiessen, H.C., 1979.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 VanUnnik, W.C., 1960. "The 'Book of Acts' the Confirmation of the Gospel"(In : *Novum Testamentum*, Vol. 4, pp. 26-59)
- Vos, G., 1975. *Biblical Theology*(Old and New Testament). The Banner of Truth Trust.
- Zerwick, M. & Grosventor, M., 1981.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e : Biblical Institute
- Zerwick, M., 1983. *Biblical Greek* (Illustrated by Examples. English edition by Smith, J.). Rome
- THE GREEK NEW TESTAMENT*(Ed. by Kurt Aland)
- New English Bible*(NEB)
-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 Septuaginta*(ed. by Rahlfs, A., Vol. II)